



제직 안수 및 임직예배



10월호차레

- 제직 안수/임직예배
- 권두언: “중이 들겠나이 다”
- 여름 수양회를 돌아보며
- 당회/교인위원회 보고
- 행정 부목사 정빙위원 외 보고
- 웨마의 밤
- 제직 임직을 받으며..
- 장로 답사
- 안수집사 답사
- 수필 [툄과 숲]
- 상륙기도와 야유외
- 청년 1부 아프리카 선교 보고
- 청년 2부 새교우 환영회
- 제18회 연합선교대회를 다녀와서..
- 사회 정의의 주일을 맞이 하며..
- 중고등부 소식
- 필그림 원고 모집
- 새교우반 소식
- KCB 갤러리

9월 16일(일) 2부 예배시에 새로운 제직으로 일하게 될 1명의 장로님, 1명의 권사님과 12명의 집사님의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서약 문답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섬기기로 서약한 정진웅 장로님과 조순래 권사님,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우진, 김은미, 김준배, 박종열, 이상자, 이재혁,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 안수집사님들은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행하시라는 당회장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보스톤 노회의 노회장으로 계시는 Perry Smith 장로님과 최미길 목사님(PCUSA 총회본부의 PILP 담당목사)의 권면이 있었고, 정진웅 장로와 김동숙 집사의 답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영길 담임목사님의 “더욱 굳게 의지한 사람”의 제목의 설교 말씀과 찬양대의 “죽도록 충성하여라”의 찬양으로 2007년도의 뜻깊은 안수 예배를 은혜가운데 마쳤고, 에스터 여선교회 주관으로 준비된 오찬은 더욱 즐거운 축하의 날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지난 번 웨마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150명의 교우님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여서 삼 세대가 하나되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시간은 송편을 빚으며 삼세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 세대가 서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웨마’는 ‘들우라’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날 참석치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예배학 교수님께서 최근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요즘 교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안고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나를 설득하소서. 그러면 내가 듣겠나이다.” 요즘 설교는 설득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선지자(사사)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세로 삶을 산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으로서 길이 역사에 남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노예 해방은 물론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공휴일로 공포하였으며 미국 지폐에 ‘In God we trust’ 라는 글귀를 넣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이 되길 기원합니다.



2007수양회를 돌아보며

김 태만 집사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전교인 여름수양회를 8월 3번째 주말에 펠그림 파인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우리교회 수양회 참가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은 거의 일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또 그 정도로 좋은 장소는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여름수양회를 그 곳에서 갖고 있습니다. 수양회 진행을 담당해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코넬대학에서 교목으로 봉사하시는 전희원 목사님께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갈대야 우르, 하란, 가나안 땅’, ‘은혜로, 오직 은혜로’, ‘좋은 크리스찬은 그냥 되나?’, ‘행간 읽기’, ‘어찌 이런 일이!’ 그리고 ‘너는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매 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새롭게 결심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전목사님은 공부하시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봉사하셨던 분이시기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준비하시는 동안 연락한 이-메

일에서, 목사님께 특별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교인에게도 특별한 만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한 목사님께서 “지도자는 집단이 만든다” 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좋은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이런 의미있는 수양회에 많은 교인이 참석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듣기만 하여도 생각하게 하던 주제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데, 말씀을 들으며 그런 장애를 가지셨다고는 느낄 수 없었고, 그런 가능성을 주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양회 설교말씀을 담은 디스크를 들으며 다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요청하면 수양회 설교 말씀과 사진이 담긴 디스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ge 4로 계속)

당회 보고

1. 9월 당회에서 다음과 같은 신입 장로, 안수집사, 신임 권사 안수와 임직, 취임을 인준하였습니다.
 - 장로: 정진웅
 - 권사: 조순래, 장로: 정진웅
 - 안수집사: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우진, 김은미, 김준배, 박종열, 이상자, 이재혁,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12명)
2. 우리 교회 ECC 건축을 위하여 퀴지 영생 장로교회에서 총회 Presbyterian Investment & Load Program에 본 교회를 지정하여 17만불 CD 를 2008년 1월부터 적금하기로 하였습니다.
3. 1부 찬양대의 지휘자 조유미 집사의 사임을 수락하고, 박진욱 집사가 1부 찬양대 지휘자로, 조유미 집사가 soloist로 수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인 위원회 보고

- 8월에 활동교인 되신 분들: 박창진/김은경, 이현민/김송이, 설명진/여용동, 이진화, 김길남
- 8월-전출 교인: 조철영/정미경
- 8월 17-19일 전교인 수양회를 전희원 목사님을 모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은혜롭게 마쳤음. 참석 인원- 총 188명(어른-126명, 어린이-62명)

행정 부목사 청빙 위원회 보고

저희 청빙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세분의 장로님(이선영, 장양술, 김성빈)들이 한팀이 되어 일년 넘게 같이 일해오며,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해보고, 의견을 나누며,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 습니다.

지난 9월9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많은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교인 전체의 공동의 회를 열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선정한 부목사 후보자(윤경문전도사님)를 교인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 드리고, 교인 여러분의 찬성여부를 묻게되는 아주 중요한 특별 공동의회였습니다. 이영길목사님의 기도과 김문소 당회 서기장로님의 회원 점검이 있는 후, 청빙위원장인 김성빈장로님으로부터 간단한 경과 보고와 후보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인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투표순서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잘아시는대로, 투표의 결과는 거의 만장일치의 찬성이었고, 윤전도사님이 연락을 받고, 회의실로 입장하실 때에는, 참석하신 교인분들이 모두 기립 박수하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윤전도사님에게는 더 말할수없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겠고, 또

우리교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더없이 축복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에는 보스톤노회의 정기모임이 Sudbury교회에서 열렸고, 그 모임에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정진웅장로님과 김성빈장로님이 공동의회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윤전도사님에 대한 노회회원들의 시험이 있었고, 투표순서가 있었으며, 우리 윤경문 전도사님은 그곳에서도 거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10월21일 주일에는 윤전도사님이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또 부목사님으로 취임하게되는 특별예배가 4시30분에 있습니다. 우리교회의 54년의 긴 세월과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직접 배양되는 축복된 날입니다. 이날 꼭 많이들 참석하여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도 교인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로써 그를 밀어주시고, 크게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 청빙위원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쉐마의 밤

배 안원 집사

오색의 풍선 장식, 부드러운 찬양, 친교실을 가득 메운 교인들, 둥근 테이블에 색색이 놓인 떡만죽, 9월의 쉐마의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하, 호호, 웃음소리와 함께 아이들, 엄만,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세대가 빚어내는 송편은 모양도 각각, 색도 각각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한국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추석전날 밤의 그 모습, 그 분위기 그대로였습니다. 송편인지 만두인지 구별 불가능한 모양부터 로봇에 인형모양까지 다양한 형태의 송편에 웃음이 터지고, 송편속에 들어가야 할 깨인지 곶에 붙어있어야 할 깨인지 모를 정도로 곶과 안이 섞였어도 그 날 빛은 송편의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손수 테이블 셋팅을 하고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따끈한 국밥은 마음과 몸까지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본당으로 옮긴 2부 순서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목

사님의 설교와 중고등부, 썬플라워 유년, 초등주일학교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시는 이태훈, 문혜정 교우님의 가정이 나오셔서, 유머와 재치가 곁들인 가족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가진 추석맞이 쉐마의 밤은 정성스레 준비한 손길이 물씬 느껴지고, 참가한 사람들의 감동이 전해지는, 추석달만큼이나 풍성하고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2007수양회를 돌아보며 (page 2에서 계속)

수양회 기간 동안 함께 한 소중한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수양회 기간동안 전체 교인이 보내는 시간이 한해 동안 함께하는 교회생활의 절반이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찬양의 밤, 조별 발표, 공동체 훈련은 많은 교인이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찬양의 밤을 통해서, 열린 예배에서나 할 수 있는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별 발표에서는 모두들 마음껏 즐기며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조별 발표는 준비를 통해서 조원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좋은 발표를 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실제 발표에서는, 모든 팀이 짧은 연극을 발표하였는데,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능에 모두들 감탄을 금하지 못했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 해마다 느끼지만 저 같이 재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팀원들이 도와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갖곤하였습니다.

공동체 훈련은 조별로 진행되고, 모든 조에게 선물도 주어지지만, 성적이 좋은 조에게는 더 푸짐한 선물을 줍니다. 실사 우리 조가 성적이 나빠서 좋은 선물을 다른 조에 양보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기에 1년에 한번 있는 전교인 수양회를 반갑게 맞이하나 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주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수양회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부터 행사를 기억하게 하고 체매에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신 담당장로님, 많은 시간을 내어 이번 수양회 준비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신 집사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필요할 때마다 풍성히 채워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소중한 여름 수양회였습니다. 2008년 여름 수양회에서는 더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을 맺습니다.

장로 임직 :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이제까지 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서기 까지 길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전 여러분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깊이 존경할 수 있는 세 분의 장로님들이 제 마음 속에 떠오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저를 장로로 선출해 주신 보스톤 한인 교회 성도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분들의 본을 받아 좋은 장로가 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장로님이십니다. 당신의 몸이 약해지셨을 때 청년들이 부축하여 드리면 항상 마다 하시지 않으시고 고맙게 받아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남들에게 그저 베풀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도움을 받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타인들의 도움과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도움을 받을 때 특히 조언들을 기꺼이 그리고 또 감사하며 받는 장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어떤 목사님 못지않게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교인이 장로님께 왜 목사가 안 되셨나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이 시켜야 하지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충성된 좋은 사람이 원하는 일 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찾아 하는 사람이라고 생



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좌충우돌 하지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번째는 우리 교회 찬양대를 이끄시는 장로님을 통해 배운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이십여년을 넘게 지휘를 하시며 봉사하신 장로님을 저는 참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찬양대를 시작한지 얼마후 그 장로님께서 마음이 몹시 상해서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 오늘은 탄 분이 지휘를 하겠구나 생각했으나 그 장로님께서서는 그날도 변함없이 찬양대를 지휘하셨습니다. 저는 그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그날 배웠습니다. 저도 그 장로님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할 때, 나의 기분에 따라 하거나 혹은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봉사할수 있는 장로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수 집사로 임직 받기까지

이번에 안수집사 교육을 함께 받은 집사 12분을 대표하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의 답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안수집사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집사입니다. 다들 웃으시는군요. 실제의 나이가 아니라 믿음의 연륜이 제일 어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제의 나

이가 제일 어린 총각 집사님도 있지만 믿음의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 제가 대표로 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달에 2번 내지는 3번씩 만나면서 처음에는 서먹한 분위기에서 출발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같은 시간을 택하여 같이 교육을 받

게 하심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12명은 돌아가면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와 함께 서로의 삶의 이야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연들,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과 가슴 뭉클한 사연들을 나누면서 훌쩍 지나가버린 시간들을 아쉬워하며 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안수집사 교육이라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의 강제적 요구로 매 회마다 새로운 우스개소리를 하고나니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 수업 분위기가 훨씬 느긋해지고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하여 이후에는 목사님의 특별한 요구가 우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장로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리가

어떤 것인가, 교회의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앙고백은 왜 하는가? 교회의 직책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선출하고 있는지 등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에 조금씩 해답을 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은 안수 집사가 교회안에서 하나의 직분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각자의 독특한 은사에 따라 교회의 안 밖에서 더욱 쓰임받는 집사들이 될 것을 원하시고 계시며, 저희들 또한 교회의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약속함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늘 기도로써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보스톤 한인 교회 여러분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필: “틈과 숨”

강 길원 장로

해마다 노동절이 지나면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에 공기를 공급해주는(Aeration)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어웨이와 그린의 잔디에 일정한 깊이와 부피의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주는데, 잔디가 숨을 쉴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

... 생명이 있는 동안 중단없이 숨을 쉬고 있으며, 숨이 끊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들어마실 때는 공기를 흡입하여 산소를 취하고, 숨을 내쉴 때에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흡입한 공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폐는 간단없는 호흡을 통하여, 심장은 중단없는 피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호흡과 심장박동을 잊고 사는 우리로서는, 이를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집안에, 그리고 집 주위에 꽃과 나무를 가꾸며, 꽃과 나무를 통하여 고요함과 평안함, 아름다움을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는 우주의 질서에 경이함을 갖게 됩니다. 꽃과 나무가 숨을 쉰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 믿기가 어렵습니다. 식물은 산소를 내보내고, 이산화

탄소를 흡입한다 하니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심오하며 여기에 상호 보완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잔디가 숨을 쉰다는 사실은 믿기가 어렵지만, 숨을 쉬는 잔디에 어쩐지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서 걷는 발걸음마다 잔디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만 같습니다.

Aeration은 잔디에게 숨쉬는 틈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공기가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잔디 뿌리가 뻗어나갈 틈이 없다면, 잔디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숨쉴 틈이 없어 숨막히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숨도 공간이 필요한 것은 잔디가 숨쉬기 위하여 틈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숨쉬는 통로인 기관지가 알려지므로 인하여 좁아지면 호흡에 곤란을 느끼게 되며, 나아가 기관지가 막히더라도 한다면 질식사에도 이릅니다. 이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심장병이,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체내의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해당되는 몸의 부분이 커다란 장애가 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매일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과 사물 사이에 숨 쉴 수 있는 틈이 없다면, 공간이 없어서 숨을 쉴 수 없다면, 우리의 건강이 유지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큰 병을 얻게 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신뢰하는 친구간에, 존경하는 이웃간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받는 것은 서로간에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나무간에 서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 받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됩니다.

틈이란, 두 사물간에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없다면 틈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심장은 동맥과 정맥이 있으므로 그 기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네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있고, 우리간에는 건강한 틈이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귀중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에 매년 한번 또는 두번 ‘aeration’ 을 하는 것은, 잔디가 큰 숨을 쉴 수 있고, 여유있는 뿌리를 뺏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매년 한번 혹은 두번 우리의 생활속에 큰 공간을 만들어 큰 들숨과 날숨을 호흡하고, 몸과 영혼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버리며, 이웃과 나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큰 틈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 위를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걷습니다. 건강하고 싱싱한 잔디가 미소지으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따뜻한 햇빛이 내려쬐이며,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무지개빛 손짓을 합니다. 신선한 미풍 속에 이 름 모를 한쌍의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로 창공을 가릅니다.





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날씨는 소풍을 나가는 어린이 마냥 모든 상록 회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와 집사회에서 준비해주신 음식을 김동숙 집사님 차에 싣고 이경환 회장님을 비롯한 다른 집사분들의 차편으로 네이틱에 위치한 코치추에트 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거리 거리에는 이른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음료수, 과일, 상품 등을 차 트렁크에 가득 채우고 떠나는 길에 행여 여름이 끝나는 시기이므로 공원이 문을 닫을까 싶어 김지수 상록 회장님께서 전날 미리 답사까지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회장님의 노고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하신 분들이 차려 놓으신 점심 상은 잔칫집 상 만큼이나 화려했습니다. 백린 장로님의 식사기도로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고, 모두 맛있고 먹고 즐겁게 보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은 심술궂은 가을 바람이 반찬 그릇 뚜껑을 벗겨가서 반갑지 않은 파리 손님도 찾아오고, 옆 모래사장에서는 보트 타는 분들의 물살을 가르고 달리는 것을 보고 김 회장이 섭외하셔서 배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게임 중 보물 찾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져도

특등이 나오지 않아 다시금 찾기를 반복, 결국에는 이상구 권사님이 보물을 찾으셔서 모두들 축하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모두 함께 “모요! 율이요! 도요!” 를 외치면서 율놀이도 하여 즐겁게 1, 2, 3, 4등을 가리고 이후 노래잔치의 문을 열었습니다. 신영각 집사님의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잔잔한 음성이 가을 바람을 타고 훽날리고 회장님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나도 빠질 수 없지” 하시면서 “꼬끼오~” 하시던 김현지 권사님, 나시옥 권사님의 고운 목소리, 조원임 씨의 멋진 시 낭송, 홍경자 장로님의 멋진 고전 무용, 지나가던 외국인들도 서서 “부라보, 원더풀!” 정말로 즐겁고 복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 하옵나니 보스톤 한인 교회 상록회원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야곱의 연세에 이르도록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추신> 홍 경자 장로님의 멋진 춤 솜씨에 반해서 한 달에 두 번 상록 회원들이 춤 사위를 배우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체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3장 8절-13절)

순간에도 죄에 흔들리며 연약하기 그지 없는 지극히 작은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예정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기 전까지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선물을 추측하게 되죠. 그리고 묻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누구에게? 그 선물을 마련한 사람에게. 그러나 보통 선물을 풀기 전까진 알려주지 않죠. 풀고 나서야 그 선물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예정된 선교라는 상자를 받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 그 선물의 준비자이셨던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 답은 바로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서..인내하면서..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셨고,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알게 해주셨고, 자기 자신 더 나아가 세상을 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무엇보다 제일 귀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끊임없는 간구와 기도,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내가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러 가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단지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기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마음을 품고 시에라리온에서 우리를 통한 주님의 모습을 비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셨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Kuranko족 사람인 현지 목사님을 만나서 선교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인연이었죠.

Kuranko족은 Guinea에서 Sierra Leone으로 이주해 온 종족으로 거의 그 지역의 30%가 무슬림이고 나머지는 토속 신앙을 믿습니다. 그들이 있는 Sumbaria로 발길을 옮기려 했으나 선거기간으로 예민한 정세로 인해 Kono 어느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이어진 김 집사님과 귀한 인연은 선교에서 정말 큰 감사의 선물로 얼마나 은혜롭게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Jesus Town (예수 마을)' 그곳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분인 김 집사님께서 이곳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품고 만든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 마을을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선교로 인해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Base Camp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예배와 함께 준비해온 V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무표정한 시선들을 기억합니다. 신기했지만 이질감을 느꼈던 그들. 그들과 함께한 3-4일 동안의 시간은 이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사랑 안에서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곳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어조차도..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던 건 그들을 향한 손짓, 웃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몸짓이 그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지체가 그 작은 몸짓 하나에 행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작은 우리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런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한 번은 음식과 옷가지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실상 이들의 손길은 사랑보단 먹을 것에 갈급해 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것에 갈급해 하고 있었습니다. 헌 옷 하나 받기 위해, 사탕 하나 받기 위해, 빵 하나 받기 위해 말이죠..

우리의 옛 굶주려 힘들어했던 모습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들은 꿈과 희망, 사랑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 곳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하나된 아이들을 위한 성경반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어요.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편 지난 밤 동안 심한 비로 인한 망가진 도로 사정으로 우리가 정작 품고 기도했던 Sumbaria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우린 합심하여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Kurank족이 있는 Sumbaria 땅을 직접 밟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위해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리라고 굳게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품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우리 함께 기도해요.

시에라 리온을 다녀오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옆에서 힘을 주던, 그리고 옆에 함께 있진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마지막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몸 보스톤 한인 교회가 있었기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선물 상자를 이제 당신에게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 2:2)

이 선물을 모두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청년 2부 새 가족 환영회

9월 22일(토)에는 교회 친교실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우리 교회 청년 2부에 새로 오신 형제들과 자매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갖는 새가족 환영회였습니다.

이번에 환영회에 참여하신 새가족은 김도균 (Professor, Communications, Northeastern Univ.), 김두원 (Pre-dental, UMass Boston), 김보림 (Psychology, BC), 김영규 (Dental lab technician), 전성준 (Economics, BU) 등 모두 다섯 명



입니다.

청년 2부 임원들과 새가족 환영팀의 준비로, 6시에 저녁식사로 시작하여 9시까지, 청년 2부에 처음 왔을 때 느낀 점과 새가족들이 청년 2부에 바라는 점, 그리고 기존 회원들의 계획/다짐 등을 이야기 하며 의미있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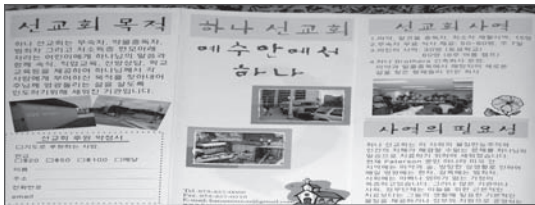
사실 이번 새가족 환영회에는, 7월 1일부터 새로 청년 2부를 맡아 지도하시는 허신영 목사님께서

지도 목사님으로서뿐만 아니라 청년 2부의 ‘새가족’으로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 2부를 찾을 것입니다. 유학생들이 많은 보스톤의 특성대로, 우리 청년 2부에도 해마다 오고 가는 회원의 수가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 그루터기 청년2부가 그들의 제 2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제 18회 연합선교대회” 를 다녀와서...

김 안나 집사



또한 30분간의 미니 세미나 시간에는 배숙희 목사님(PCUSA)이 한국으로 파견되어 하시는 한국에서의 여성 사역에 대해 많은 감명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9월 29일(토) 오전 10시 부터 오후 3시까지 뉴저지주의 에리자베스 한인교회에서 가진 연합선교대회는 동북대회 여선교회 (KPW/SNE)와 동부 한인교회 여선교회(EKPW)가 연합하여 주관하였다.

약 10여개 교회의 여선교인들이 모여서 가진 모임은 에리자베스 한인교회의 여선교회원들의 식사봉사로 더욱 따뜻함과 감사함을 느낄수 있었고, 가을이 진하게 느껴지는 청명한 날씨와 교회 앞마당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감나무의 감과, 마지막 열매의 무르익어가는 포도의 맛을 보며 하나님님의 은혜를 푸근히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에리자베스 한인교회의 김준식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한 개회 예배에서는 “선교의 영역”이란 제목의 설교 말씀으로 우리의 변화해야 하는 단계를 자상하게 일러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 우리 교회의 조유미 집사가 특송까지 불러 더욱 빛나는 예배가 되었다.

미국 장로교 여성 가을 모임 (Fall Gathering)

주제 강연시간에는, “섬김의 열매” 라는 주제로 Paterson, NJ에서 약물, 마약, 알코올, 도박 등의 유혹 가운데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과 노숙자, 전과자들을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선교회의 김향옥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다.

보스톤 지역의 미국 장로교 여성 모임이 이번 가을을 맞아, 10월 21일 오후 3시에 Newton Presbyterian Church에서 열립니다.

자원부족, 봉사자 부족, 장소부족, 자원자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기도와 몇 안되는 자원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장래의 확장 사업을 구상까지 하며 전심을 다해 사역하시고 계시는 하나선교회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초청 강연자로는 페루에서 미국 장로교 Hunger Program을 맡았던 선교사 Ruth Farrell을 모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경애 권사께 연락 바랍니다.

세계 평화와 사랑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이를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주일을 맞아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각 개인의 노력은 세계 도처에 만연된 각종 사회악과 범죄, 불우를 이기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듯합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모래알만큼이나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모여서 모래 언덕을 이루며 파도를 막아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과 행동이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자각과 격려를 필요로 하며 작은 행동이 결집되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정의를 위해 몸을 던지는 행위가 매일 매일 요구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심겨진 악을 뽑아내는 일에 열중하면 우리는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악을 이길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안에서 주님과 함께 때가 이르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버리는 휴지 한장, 종이컵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을 줄이는 일상생활의 태도까지 아름다운 이 지구촌을 깨끗하게 쓰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아들까지 내어 놓으실만큼 가치있는 이 땅, 이곳의 사람들...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약속해봅니다.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 We are caught in an inescapable network of mutuality, tied in a single garment of destiny. Whatever affects one directly, affects all indirectly.”

Dr. Martin Luther King Jr.
“Letter from Birmingham Jail, 1963”

<생각해 봅시다>

최근 캔사스 주의회 상원회의에서 Joe Wright 목사님이 하셨던 개회 기도문입니다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oday to ask your forgiveness and to seek your direction and guidance. We know Your Word says, ‘Woe to those who call evil good,’ but that is exactly what we have done. We have lost our spiritual equilibrium and reversed our values.

We have neglected to discipline our children and called it building self esteem.

We have abused power and called it politics.

We have coveted our neighbor’s possessions and called it ambition.

We have polluted the air with profanity and pornography and called it freedom of expression.

We have ridiculed the time-honored values of our forefathers and called it enlightenment.

Search us, Oh, God, and know our hearts today; cleanse us from Every sin and set us free!

Amen!”

We have exploited the poor and called it the lottery.

We have rewarded laziness and called it welfare.

We have killed our unborn and called it choice.

We have shot abortionists and called it justifiable.

최 근 Ransom Youth Group에서는 두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9월 23일에는 2007학년도 학부모회의 (PTA meeting) 이 있었습니다. Youth group 전반에 관해 학부모님들께 소개를 하고 새학년에 있을 여러 행사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일년동안 PTA 회장으로 김영미 집사님 (Chris and Josh어머니) 께서 그리고 부회장(?)으로 이경자 집사님 (Tiffany 어머니) 께서 수고 하여 주시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역자: John Chung (정한진) 전도사
 담당집사: 김성현 집사
 교사: 6,7,8학년 — 장성화, 지민형, 이동운
 9, 10학년 — 한혜성, Daniel Lee
 11, 12학년 — 황동준, 안은신
 한국어반(middle school): 양경삼, 김주영
 한국어반(high school) : 김미진, 강모영

9월 마지막 토요일인 29일에는 2007학년도 Open House행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이 Sun-flower에서 Youth Group으로 올라온 6학년 학생들을 환영하고,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약 15명의 학생들과 10여명의 선생님들이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학생들끼리 준비한 여러가지 게임과 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PTA에서 준비하여 주신 맛있는 저녁식사를 나누고, 그날 있는 Shema night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의 티를 벗지 못한 우리 새로운 6학년 학생들이 Youth Group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Youth Group학생들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

- 김효경 집사님: 9월에 아버님께서 뉴욕에서 소천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 10월 24-26일 Korean Ministry Consultation 참석
 10월 26-28일 포트 웨인 한인교회 사경회 인도

웹사이트 업데이트: 사진 자료

*교회 웹사이트의 [3세대 게시판]에는 교회 행사때 찍은 사진들 앨범을 올려 놓습니다. 최근에는 전교인 수양회 사진 앨범, 쉼마의 밤 사진 앨범, 상록기도회 야유회 사진 앨범이 실려 있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성찬 주일

<세계 성찬 주일에 드리는 평화 조성 헌금>

당신이 갖고 있는 평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도록 도울 당신의 교회, 사회, 그리고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교회는 어떻게 소성하는 역사귀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장로교 평화조성헌금은 하나님의 치유와 평화를 나누도록 지역과 지방과 국가 차원에서 장로교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치유가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우리 모두가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므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위한 일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보통 세계성찬주일에 드립니다.



“필그림” 2007 원고 모집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더 테레사

질은 초록의 녹음속에 살며시 고개 내민 노랗고 빠알간 단풍잎새를 보며 가을이 시작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풍요와 사색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며, 나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두 손을 모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음속에 차오르는 풍요로움을 느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바쁜 삶을 핑계로 소홀했던 이웃을 위해,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점점 더 부모와 닮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 고개숙인 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신앙 수필을 차곡차곡 모아 [필그림]이란 한편의 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2007년 [필그림]지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다양한 주제의 기도문이나 신앙 수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수필주제 : 원하시는 제목 어느것이든 가능
분 량 : 한 페이지 정도
보내실 곳: 배한원 집사(hanwbae@yahoo.com),
혹은 교회 사무실



필그림에 얹을 주제들

나와 주님과와의 만남의 기도

신앙간증, 감사기도, 고백/묵상, 성령 충만한 삶, 기쁨의 기도, 평화의 기도, 주의 뜻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새벽기도, 아침기도, 취침기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일터에서 드리는 기도

나의 형제, 자매, 가족을 위한 기도

병고에 있는 이웃을 위해, 시험당한 영혼을 위해, 외로운 이웃을 위해, 유아들을 위한 기도,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 상록회 회원들을 위한 기도, 대학/청년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구역원들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보스톤 한인사회를 위한 기도, 부르크라인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지역사회의 인종 화합과 평화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교육/봉사/선교의 교회를 위한 기도,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 ECC 건축을 위한 기도, 각 기관을 위한 기도, 새신자를 위한 기도, 구역들을 위한 기도, 제직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

교회 절기에 드리는 기도

신년, 사순절, 종려/고난/성금요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대강절, 성탄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선교지의 복음전파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니카라과 선교를 위한 기도, 연변, 북방선교를 위한 기도, PCUSA의 사업을 위한 기도

조국(남한/북한)을 위한 기도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한국의 기독교를 위한 기도,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도, 학대받는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기도

어린이들의 기도

아침기도, 식사기도, 취침기도, 가족/이웃/세계를 위한 기도

• 영어로 된 기도, 시로 된 기도, 등등 다양한 형태의 기도문도 환영합니다.

새 교우 환영반 소식



9월 새교우반은 목사님과 3주간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모여 첫째주에는 자기 소개를, 둘째주에는 “말씀과 함께” 교재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그리고 셋째주에는 우리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있는 교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정/민병준 (첫째줄 왼쪽) - 민병준 교우님은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7살때 한국으로 가셨다가 고등학교때 다시 미국으로 오셔서 대학을 나오시고 해병대에 자원하셨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시며 아들 찬기, 이상정 교우와 somerville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공은희 (첫째줄 중앙) - Tufts univ. 에 가정의학 2년예정으로 연구차 오셨습니다. 자녀로는 정우, 정민이가 있고 남편은 한국에 계시며, Brookline에 거주하십니다.

이현주/김경민 (첫째줄 끝) - 우리 교회 오랫동안 출석하시다 등록을 하였고, 김경민 교우께서는 부동산학을 전공하셨으며 시운, 대현 남매가 있으며 Brookline에 거주하십니다.

이운선/이용재 (뒷줄 왼쪽) - 이용재 교우께서는 아산병원 안과 의사이시고, 지금은 M.E.E.I 에서 1년 예정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중서 3구역 소속이시고 Brookline에 거주하십니다.

새교우님들을 환영하기 위해 김문소 장로님택에서 초대하여, 푸짐한 음식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 장로님택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서 열린 배 또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로님과 김계숙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문]

모든 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더 테레사

“모든 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지닐 수가 없으며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정도
또한 극히 적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말을 하면서도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기도에 대해서도 늘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2007년 전체 교인 여름 수양회



• 여름 수양회 - 전교인 한마당 축제



• 상록회 야유회



• 9월 제직 안수, 임직 예배



• 9월 추석맞이 웨마의 밤-송편 만들기



• 청년 1부 아프리카 선교



• 웨마의 밤 특별 찬양



• 행정부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마친후...